

감정노동자 웃음 찾기...시, 보호센터 설치

실태조사 뒤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부문 노동자 휴식 보장

광주시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실태조사 및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5일 감정노동자 보호위원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종합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종합계획에는 ▲부서별 보호방안 마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시, 투자기관 및 위탁기관 감정노동자다. 시는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 시에는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업무 중단권과 악성(강성)민원 응대 후 최소 30분 이상 감정소진 회복을 위한 휴식권을 보장하게 된다. 또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 프

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야 한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투자기관 및 위탁기관 등 각 기관은 오는 12월까지 자체 감정노동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악성·강성 민원 등 유형별 민원에 대한 대응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민간부문(버스운전자 및 민간콜센터) 감정노동자 620명과 공공부문(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자 27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곽현미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최근 서비스 산업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로 감정노동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건전한 근로문화의 민간 부문 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준 어떻게 만들까

오늘 시청서 연구 최종 보고회

광주시는 29일 시청 1층 행복드림실에서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준 개발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

최종 보고회에는 노동계, 경영계, 더 나은일자리실무위원,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용역결과 청취, 질의답변 및 의견수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내용은 인증기준(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광주형일자리 인증 확산 로드맵 제시 등이 포함된다. 노사전문가 등으로부터 FGI와 중요도(AHP) 분석을 통해 임금 수준 및 임금 격차 등 4개 요소, 근로시간 및 제도·시스템 등 4개 요소, 제도 및 시스템 등 3개 요소, 지원 활동 등 3개 요소 등을 추출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사업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3월 고용부가 공모한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추진중이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해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빛그린산단에 완성차 공장에 투자한다는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해 현재 시와 협상이 진행중이며, 100대 국장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중앙부처의 적극적 지원 등 탄력을 받고 있다.

곽현미 시사회통합추진단장은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가 추구하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등을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에 적용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프리카 5개국 공무원들 광주서 지방행정 연수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개발원 아프리카 공무원 지방행정 연수단이 29일 광주를 방문한다.

세네갈,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우간다 등 아프리카 5개국 지방 고위·중견 공무원들로 구성된 연수단은 이날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 광주의 선진 지방행정에 대해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서 광주정신과 우수시책들을 소개한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 무등산, 광주형 일자리사업, 친환경 자동차 산업, 에너지 신산업, 문화 융합 콘텐츠 등 광주 핵심 정책 등을 홍보영상으로 전달 예정이다. 또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종합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청년드림사업을 알리기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개발원은 공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공무원을 초청해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간 지역균형개발과 정부혁신을 주제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어르신들의 넉넉한 인심 지난 27일 오전 광주시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 영농체험회 회원 60여 명은 김치 800여 kg을 수확해 북구 동림동 시립장애인복지관 등 인근 복지 관련 기관 6곳에 나눠줬다. 회원들은 지난 3월 중순 약 17㎡규모의 개인 텃밭에 씨감자를 뿌려 3개월만에 수확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농장은 발갈구기, 씨뿌리기, 잡초 제거, 퇴비 주기 등 전 과정을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효령노인복지타운 제공>

세균성 설사 주의 "삼계탕 꼭 익혀드세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장마 시작 전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내 세균성 설사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감염병 및 집단식중독의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한 4개 협력병원을 포함해 지역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사질환실질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감시사업 운영결과 지난 6월까지 설사, 복통, 구토 등 소화기증상을 보인 환자의 가검물 1148건 중 476건(41.5%)에서 원인병원체가 검출됐다. 특히 세균성병원체의 검출률이 6월 첫째 주 6.4%(47건 중 3건)에서 둘째 주

15.1%(53건 중 8건), 셋째 주 32.5%(40건 중 13건)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야유회, 가족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음식물 방문이나 도시락 섭취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 검출된 주요 세균성병원체는 살모넬라균 37%, 캄필로박터균 30%, 황색포도알균 15%, 병원성대장균 13% 등 순이다.

이와 관련,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닭 등 가금류에서 교차 오염되기 쉬운 캄필로박터균에 의한 설사환자 발생이 지난해 상반기(12.0%)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삼계탕 등 닭 요리를 조리·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재난 대비 강화' 광주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개선하고,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는 32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8, 지자체 243, 공공기관 55)을 대상으로 ▲개인역량 ▲재난부서역량 ▲네트워크역량 ▲기관역량 등 총 4개 분야 128개 지표로 2017년 재난관리 추진 실적

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전문교육 이수 실적, 폭염 피해 최소화 실적,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정비 실적,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및 훈련 실적, 감염병 대비 역학조사·방역인력 확보 실적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자치구는 남구 우수, 서구, 북구, 광산구는 보통, 동구는 미흡기관으로 선정돼 시와 남구에는 정부포상과 포상금 지급,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안전 관련 평가 잇따라 높은 점수

광주도시철도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18 중앙·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326개 평가대상기관 중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신뢰받는 안전도시철도'를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고 전 부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이뤄 '2022 중장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구축,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역할 숙지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풍수에 저감계획 등 전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

석됐다.

공사는 재난관리 유공 국민포장,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국무총리상에 이어 이번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기관에 연달아 선정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공사 김성호 사장은 "어떠한 재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 자만하지 않고 시민들께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외국인 119 신고 OK...통역 도우미 간담회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7일 시청 17층 회의실에서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 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국어 3자 통역 도우미'는 현재 10개 언어권 41명이 등록돼 활동하고 있다. 도우미들은 광주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들이 언어 장애 없이 119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7개 언어권 3자 통역 도우미 20여 명과 소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119 신고 관련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3자 통역 시 어려운 점 등

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내년에는 광주에서 세계수업연수권대회가 열리면 이 기간 많은 외국인들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장과 선수촌 배치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긴급상황 발생 요령 관련 소방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외국인의 119신고 처리현황은 하계 U-대회가 개최됐던 지난 2015년 70건이였으며, 2016년 14건, 2017년 13건, 올해 6월까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약 1000만원~~
-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